

B201**전라북도 지방의 한약자원 식물에 관한 연구**

길봉섭 · 김창환^{*} · 김영식² · 유현경 · 김병삼
 원광대학교 생명과학부 · 이리농공전문대학 녹지조경과¹ ·
 원광보건전문대학 물리치료과²

산에서 캔 더덕과 밭에서 재배한 더덕은 맛이 서로 다르고 약용자원으로서 가치도 다를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외국산 수입약재는 수송과정상 또는 몇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향토자원의 보존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전라북도내 소산 한약자원식물의 종류와 분포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지는 덕유산, 내장산, 장안산, 덕대산, 운장산, 대둔산, 해안지방 그리고 평야지대 등에 걸쳐서 1997년 3월부터 8월까지였으며 앞으로 11월까지 계속될 것이다. 주요 한약자원 식물로는 얼레지, 족도리, 오미자, 음나무, 오갈피, 용담, 천남성, 천마, 승마, 둥굴레, 더덕, 현호색, 붉나무, 꿀풀, 애기똥풀, 마, 박새 등 약 120 종류가 조사되었고, 이들을 개화기로 본 분류, 분포지에 빈도와 피도가 높은 식물, 그리고 재배하면 효과가 기대되는 자원식물 등으로 구분하여 보았다.

B202**원자력발전소 배수로에 생육하는 내열종 해조류의 종조성과 생물량**

김영환*, 강연식¹, 엄희문¹
 충북대학교 생물학과, 전력연구원 환경그룹¹

한국산 내열종 해조류의 특성을 밝히는 노력의 일환으로 1991년 5월부터 1997년 2월에 이르기까지 6년간 계절별로 고리원자력발전소 배수로에 출현하는 해조류의 종조성과 생물량을 조사하였다. 조사시기별로 8~26종의 해조류가 배수로에서 관찰되었으며, 10~368 g dry wt m²의 생물량 범위를 보였다. 현존량 구성비율로 본 우점종은 납작파래(*Enteromorpha compressa*), 켈생이모자반(*Sargassum horneri*), 구멍갈파래(*Ulva pertusa*), 붉은까막살(*Prionitis cornea*), 부챗말(*Padina arborescens*), 고리마디게발(*Amphiroa zonata*) 등이었으며, 이 가운데 켈생이모자반은 여름에, 부챗말은 겨울에, 그리고 고리마디게발은 봄에 특히 생물량이 많은 계절적 특성을 보였다. 1983년에 동일한 배수로에서 국내 최초로 보고된 내열종 11종(김, 1986) 모두의 생육을 이번 조사에서 재확인하였으며, 그밖에 20여종의 새로운 내열종 해조류 목록과 이들의 계절적 변동을 보고한다.